

멜랑콜리를 설치하는 회화적 방법

The Pictorial Method of Installing Melancholy

윤경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설치는 예술이기 전에 우리 누구나가 하는 일상적 행위다. 아주 어린 아이를 관찰해보라.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감각이 생기면서, 그리고 타인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을 경계 짓고 점유하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아이는 자발적으로 설치를 실행한다. 우선 집 안에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한 군데 정한다. 큼지막하고 못생긴 의자 아래, 고무나무 화분 뒤, 방 한 켠에 세워둔 여행용 트렁크 안쪽, 옷걸이가 형성하는 천연의 막과 벽의 틈새 따위. 그런 빈 구석이 있는지조차 인식되지 않다가, 아이의 본능적 측량술로 인해 비로소 하나의 어엿한 독립 공간으로 도려지게 된 곳. 삼차원 공간이 아니라 평면의 방문 한 짝일 수도 있고, 빈 상자나 안 입는 작은 옷 주머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이는 그렇게 지정한 공간에 자기만의 원칙에 따라 수집한, 주로 낡았거나 망가졌거나 버려졌다 다시 주워왔거나 때 묻은, 사물들을 역시나 자기만의 원칙에 따라 배열하고 설치한다.

수집과 설치의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그 장소는 필연적으로 시간성을 덧입게 된다. 시간과 사물들의 작용으로 장소는 점점 복잡해진다. 점점 무질서해진다. 타인의 시선에는 싹쓸어 내버려야 할 것들의 하치장이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그곳은 이제 장소를 넘어 자기의 상상적 신체 자체다. 이제까지 자기의 몸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시공간과 그 안에서의 사건과 체험을 압축해 표상하는, 기억하는, 저장하는, 뇌다. 그 작은 장소의 풍경은 아이의 뇌의 입체적 해부도다.

우리가 충분히 현명한 성인이라면, 우리의 일은 그 장소를 청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장소의 생장을 격려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하지도 않게. 자기만의 생명성을 지니며 변모해가는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기.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아이 스스로 그 장소를 파괴하는 시간. 장소와 사물의 물질성이 소멸되고 기억은 오로지 실제 뇌에만 저장된다. 아이는 자아와 타자의 구분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제 신체와 상상적 신체의 차이도 인식하게 되었다. 체험은 시축각적으로 현존하는 장소와 사물의 보조 없이도 뇌의 회상 작용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재생될 것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설치물의 자발적 파괴는 추상적 상징화의 성공을 의미한다. 체험은 어쩌면 완전히 망각되어도 상관없을 테니, 그렇다면 아이에게 설치물의 파괴란 자기의 상상적 신체를 해체하는 애도의 완수이기도 하다. 마치 어른벌레가 애벌레 시절의 껍질을 버리듯.

아이의 자라면서 이 같은 설치와 파괴를 반복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새로운 체험과 기억을 쌓아가면서, 새로운 매체와 도구들로, 자기 몸과 마음의 새로운 풍경과 해부도를 거듭 만들고 부술 것이다.

개인의 성장 단계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체험의 저장 양식도 변화한다. 일기장, 앨범, 스크랩북 등 고전적인 책의 형태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 각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사반세기가 지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온 현재까지는 플로피 디스크, CD, USB 드라이브, 모바일 클라우드 등. 이러한 도구들은 어린 날 최초의 설치 공간과 수집물들이 진화한 것이다. 실물에서 가상으로, 더욱 간편하게, 더욱 압축적으로.

모으기와 버리기, 설치하기와 파괴하기, 저장하기와 삭제하기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인간은 분명 성장하고 진보한다. 그러나 이처럼 제거하고 비우는 필수적인 과정이 언제나 수월하지는 않은데, 그것은 도구와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다. 기억은 우리가 겪은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에 결부된 감정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일기장, 스크랩북, 사진첩, 메모, 파일 등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각종 물질적인 기억 장치들을 폐기하려고 결심할 때는 그것이 담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망각해도 앞으로의 삶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리라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나서이다. 그러나 제거할 것과 보존할 것을 분류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수집하고 저장해둔 것들을 다시 들춰보는 동안, 이성은 감정의 영향에 나약해진다. 감정은 지나간 사건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장한 오래된 도구들에도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버리기 어려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저장 도구들에 담긴 내용물이라기보다는 저장 도구 그 자체다. 메시지의 시효를 상실한 쪽지, 손때 묻은 가죽 수첩, 최신형 컴퓨터 본체에 끼워 넣을 수도 없는 플로피 디스크 등. 이것들은 지나간 시간에 관한 향수 어린 멜랑콜리를 저장하고 있고, 그 감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지워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거하기 불가능한 것을 위해 차라리 최상의 저장 장치를 마련해준다면 어떨까. 이유성의 평면 설치는 이 같은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기억을 가상으로 압축하는 시대에 이유성의 작업은 반대로 기억 저장 도구의 실물성을 두드러지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 찍힌 사진들, 실없이 우스꽝스러운 취기의 장면들, 저렴한 여행의 추억, 열광적으로 수집한 조잡한 스티커들, 무의미한 단어들이 적힌 포스트잇 등,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손쉽게 금세 버릴 수 있을 만한 덧없고 박약한(ephemeral and flimsy) 것들에 이유성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견고한 예술적 형식을 부여한다. 취약한 물성과 시간성을 지닌 것들을 텍스타일과 회화라는 오래된 역사성을 지닌 기법으로 보존하려 한다. 프레임은 거의 수공업자의 노고로 제작함으로써 그 안에 배치할 것이 단지 추상적인 이미지 파편들이 아니라 시간성과 감정의 개인사(personal history)임을 말하려고 한다. 게다가 디지털 저장 장치에서는 아마도 삭제되었을 기억의 내용들은 프레임과 캔버스 안에서 밀착하거나 포개져서 망각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한다. 멜랑콜리의 감정은 이렇게 기어이 잔존하려 하는 이미지들의 저항력에서 더욱 짙게 누출된다. 이유성의 작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감정이다.